

하나님도 감탄하신 이긴자의 희생생활

천지개벽의 천지공사는 구세주가 혼자 하는 거지,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구 땅 위에 있는 마귀를 모조리 죽이니까 마귀들이 전부 별나라 달나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달나라 별나라로 도망간 마귀들이 지구에 다시 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달나라 별나라로 도망간 마귀들 모조리 잡아서 뿌리째 뽑아서 모조리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숨을 곳이 있을까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천 년간 구세주를 기울 때에 완전하게 키운 겁니다. 말하자면 전지전능자로서 키운 것이지, 그냥 어설픈 키운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피가 썩어서 체한다

이 사람은 초창기에 다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욕심이 죄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서 욕심 부리면서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데, 체한 사람 손가락을 이제 사관을 따게 되면 시커먼 썩은 피가 나옵니다. 그것은 피가 이제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썩은 피가 모세혈관을 가로막기 때문에 위장을 움직여주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위장에 위액이 전달되고 위가 가동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위속 미세한 혈관이 막히니까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위가 뒤틀립니다. 체한 사람이 배가 아파서 펄펄 뛰는 이유가 위경련이 일어나 뒤틀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관을 따게 되면 시커먼 썩은 피가 터져 나오면서 그 다음에 트림이 나오면서 소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혈관이 막힌 상태에 있으면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그 막힌 부분까지 피가 갔다가 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

니까 막힌 부분 반대편에 있는 혈관은 진공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압축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사관을 따게 되면 그 압축상태에 의해서 막고 있는 피가 '뽕' 하고 터져 나갑니다. 뽕하고 터져 나가면서 사관을 떼 때를 통해서 시커먼 피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트림이 나오면서 소화가 됩니다. 사관을 따면 체한 것이 낫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는 다 아는 겁니다.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위액이 전달 안 되고, 위를 가동시키는 그 에너지가 전달 안 되니까 위가 뒤틀리는 겁니다. 뒤틀리는 순간 배가 아파서 펄펄 뛰는 겁니다. 그때에 사관을 따게 되면 막혔던 모세혈관이 뚫려서 피가 유통이 되니까 위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위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을 하니 바로 소화가 다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학박사들도 모릅니다. 의학박사들도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무릎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확실하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요? 사람 몸 안에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대로 인체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여기면 화도 안 나

화가 나는 것도 상대방한테 기본 나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면 기분 나쁜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겨라.' 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여기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가 썩을 수가 없어요.



구세주 조화성님

영생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막혀서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협조자가 되어서 이 영생의 길을 무난히 가야지. 이 영생의 길을 가다가 못 간다면 여러분들 참 비참한 겁니다. 이 길을 가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 길을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날

아다니는 그러한 쾌락의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인간 속에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야 바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기면 하나님 마음 품게 돼

하나님이 되려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몸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절대로 병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도 안 걸

리고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품는 방법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공경을 하면 자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보인다면 자기라고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까? 자연히 자신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공경을 하고 섬기면 자신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도 이 사람이 초창기에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지켰다면 다 지금쯤은 하나님이 다 되었습니다. 십 년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니깐,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안 되고 항상 사람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밑에서 연단 받을 때에 이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공경을 하고, 아들뻔 되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너무 해오라고 하면 너무 해오고, 돌을 큰 걸 짊어지고 내려오라고 하면 큰 바위 돌을 짊어지고 내려오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없이는 세상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는데 자기 안 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전부 이기고 마귀를 전부 죽여 버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한테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에

게 미쳐버린 걸 알고, 해와 이긴자가 '이긴자가 되었다.' 고 한 겁니다. 이긴자가 아니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긴자라야 원수의 사람을 마음을 돌이켜서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도로 빠져버린 겁니다.

대상자를 이겨야 이긴자가 된다

이 길을 가노라면 대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바로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죽어버립니다. 그 마귀를 죽이고 이기면 자신이 이긴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긴자라고 뭐 키가 크거나, 뭐 기운이 세거나 그래서 이긴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방 안에서 같이 살 때에도 따뜻한 아랫목에는 그 사람을 재우고, 나는 윗목 찬 데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추워서 떨리니까 밤새도록 떨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월이 삼사 개월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된 거예요. 이긴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고, 틀만 있으면 시기하던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꿔지니 하나님도 놀란 겁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전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도 전부 죽이고 이기니까 하나님도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의 그런 희생적인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2002년 10월 28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유익한 정신적 자극은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근간이 되는 피를 맑히는 생명소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 몸에 좋다면 별의별 희한한 것도 다 먹어도 요즘 사람인데, 마음만 잘 먹어도 그보다 더한 보약이 되는 것이 유익한 정신적 자극이자 마음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돈 안 들고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유익한 정신적 자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좋으리라 본다. 돈과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착각하는 세대에서 마음을 애기하고 정신을 애기한다는 것이 좀 생똥맞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는 자는 볼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유익한 정신적 자극을 살펴보고, 그 영적(靈的) 실과(實果)를 맛보기로 하자.

유익한 정신적 자극

유익한 정신적 자극을 함의하고 있는 말에는 평화 희생 겸손 양보 봉사 베품 만족 감사 웃는 마음 등등 많이 있다. 얼핏 보기에는 고루한 어휘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물질적 자극에 빠

져 있는 물질만능주의자와 황금만능주의자의 삶에 도취되어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짜 사람의 건강과 생명, 아니 거기에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영적 자극을 잘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신적 자극에 대하여 무엇이 있고, 그것의 정확한 원리와 인과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무슨 일이든지 근원적으로 알고 이치적으로 터득해야 행하기가 쉬운 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신적 유익한 자극에 해당하는 예를 많이 들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하나, '마음의 평화' 상태를 가지고 심리학적 생리학 적 의학적으로 낱낱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음의 평화란, 심리적으로 마음이 맑고 편안하여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때 얻어지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 것일까?

현 시대를 정신없이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은 아득히 먼 세계 속에 벌어지는 이상(理想)에

피를 맑히는 자극과 썩히는 자극 ②



불과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대다수 사람들은 잠시라도 손을 놓고 쉬고 앉아 있으면 온갖 잡념과 망상, 부정적 의식과 불안감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지 않나 싶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며, 고통과 질병을 떠나 살 수 없는 필연의 결과라는 것이다.

분석해 들어가 보면, 정서적으로 마음의 평화의 상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조건과 환경이 구비될 때야 가능한 법이다. 그렇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상

태, 즉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습관)이 건강하고 건실한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쉬운 말로 지극히 양심적인 심리상태와 생활습관이 배어 있을 때만이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지극히 양심적인 상태란 자존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으며 욕망이 끊어져서 감정의 큰 기복이 없는 행(行)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생리학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신경이 안정되고 항상성과 면역성, 그리고 생명력이 담보되어 원기(元氣)가 왕성해진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동양 전통

한의학을 일명 기(氣)를 조절하는 의학, 또는 마음(정신)을 다스리는 의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心理)에 따라 생리(生理)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인용해 본다.

마음의 움직임은 감정으로 나타나며 한의학에서는 감정을 일곱 가지 즉, 노(怒) 희(喜) 사(思) 우(憂) 비(悲) 경(驚)으로 나누어 칠정이라 하고, 이 칠정이 각기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정도를 벗어나면 질병에 걸려

만약 정도(양심적 행위)를 벗어나 지나친 정서가 격렬하게 또는 길게 계속되면 오장육부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소문(素問):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에서 "노여움은 간을 손상하고(怒傷肝), 기쁨은 심장을 손상하며(喜傷心), 생각은 비장을 손상하고(思傷脾), 걱정은 폐를 손상하며(憂傷肺), 두려움은 신장을 손상한다(恐傷腎)"고 하였다.

〈소문(素問): 거통론(舉痛論)〉에서는 "성을 내면 기가 오르고(怒即氣上), 기빠하면 기가 이완되며(喜即氣緩), 슬퍼하면 기가 소모되고(悲即氣消),

두려워하면 기가 아래로 내려가며(恐即氣下), 놀라면 기가 흐트러지고(驚即氣亂), 생각하면 기가 엉긴다(思即氣結)"고 하였다. 이것은 정서의 변화가 생리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다.

의학적이란 인체의 구조나 기능, 질병, 치료, 예방, 건강 유지의 방법이나 기술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데, 그 모든 사족(蛇足)을 약하고 핵심만 짚어 논하자면 양심적인 생활과 자신의 신체적 단련을 통한 강한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최고의 '마음의 평화의 상태'를 이루는 비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모로 정성과 노력, 공(功)을 들이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고차원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 개론으로 기술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듯이, 마음의 평화의 영역에 오르는 양심적인 생활도 지난한 과정의 시간을 통한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자에게 성취의 달콤한 생명과(生命果)가 주어지는 법이다.*

김주호 기자